

# 양돈인의 미래를 키우는 '현장양돈교실'

지난 2006년 처음 실시된 '우수 농업교육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한양돈협회의 '젊은 양돈인 스터디 그룹'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사)대한양돈협회의 '젊은 양돈인 스터디 그룹'은 지난 2006년 8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12주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뜨거운 관심과 열기속에 총 20명의 교육생이 현장양돈교실을 수료하였다.

취재 - 박기진



◀ 현장양돈교실 중부권 워크샵에서 현장교육 후 참가자들이 함께 단체기념촬영을 했다.

특히 이번 워크샵은 농장 견학 및 현장 진단, 전문가 컨설팅이 함께 병행되어 생생한 현장학습을 구현했을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함께 견학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가자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양돈교실에 참가한 충남 예산의 차형일 사장은 “매주 2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서 참석하지만 정말 유익한 교육을 받고 간다. 교육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하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욱 세분화하고 각 지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양돈교실에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장양돈교실은 올해 중부권, 경상권, 전라권 등 3개권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은 주로 사양관리와 유통현황, 사료영양, 농장 그룹관리, 질병 등 양돈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주 금요일 갖고 사례발표와 실습을 통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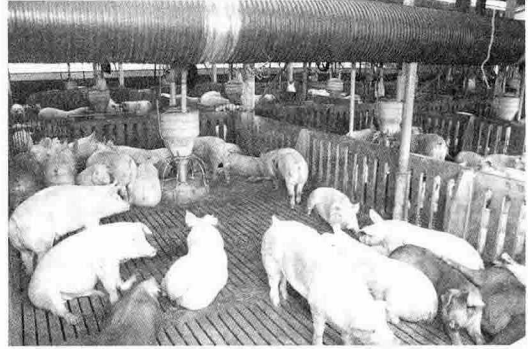
지난 6월 1일~2일에는 용인 백암지역에서 중부권 현장양돈교실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12주과정 중 8주차때 진행되는 워크샵은 1박2일 일정으로 안기홍 한국양돈컨설팅연구소 소장, 박건용 거평동물병원 원장과 농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함께 찾음으로서 농가 간의 벤치마킹 및 농가진단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현장양돈교실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돈인을 위한 양돈기술축적교육과 소규모 스터디 그룹 진행을 통해서 능동적인 후계농 육성 및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12주차 교육때는 양돈교육을 떠나 자기계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함으로서 양돈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안기홍 소장의 사양관리 체크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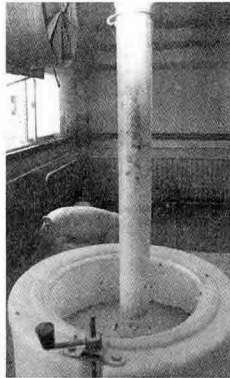
▲ 현장에서 모돈사료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안기홍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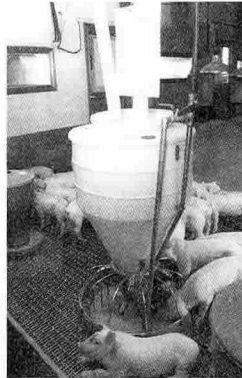
▲ 원형급이기를 이용한 급수시설외 별도의 니플급수시설 설치로 충분한 급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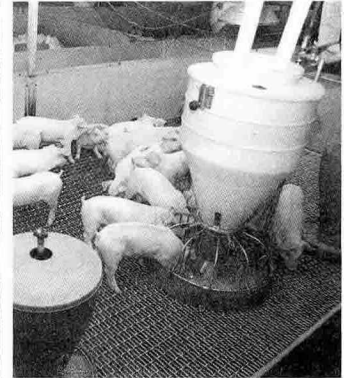
▲ 모돈 관리의 기본으로 모돈 몸체에 (+, -)를 표시하면서 BCS를 조절하면 효율적이다. 사료영양, 돈사환경, 돼지 체형 산차 등을 고려하여 사료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 자유급이에서 사료파이프는 최대한 낮추어 항상 신선한 사료를 공급 해주어야한다.



▲ 급이기에 부착된 호스로 물을 주면 자돈들이 모여 드므로서 음수부족을 확인할 수 있다.



▲ 분만사 뿐만 아니라 자돈사의 원형급이기에 급수용 호스를 이용해 충분한 음수를 공급하는것이 좋다.

가) 분만사 포유모돈은 니플외에 별도의 신선한 물을 항상 공급해 주어야 한다.(급수용 호스 또는 직수 배관 이용)

나) 분만사 모돈의 사료섭취량을 늘리고 소화율 수월하게 하기 위해 액상급이(사료3:물1)를 1일 4~5회까지 급여한다. 사료급여 후에는 미련을 갖지 말고 1시간 내에 남은 사료를 버린 후 충분한 음수를 공급해 줄 것.

다) 분만사 바닥에는 자돈의 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깔판을 항상 깔아줄 것.

라) 바닥에 의해서 체감온도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2006년 아이오와대학 자료)

① 플라스틱(-3.9℃), ② 콘크리트(-5℃), ③ 와이어(-5℃), ④ 젖은 콘크리트(-10℃), ⑤ 합판(+3.9℃), ⑥ 벚짖(+3.9℃)

마) 원형급이기를 이용하여 자돈들이 항상 충분

## 워크샵

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워터컵을 이용한 별도의 급수시설을 갖출 것.(자동사 전용 급수기 설치)

바) 모든 현황판을 모든 음부위의 눈높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깔끔하게 정리된 임신돈의 모든 현황판-관리자의 긴장도와 작업능률과 연관)

사) 시간과 노동력이 들더라도 분만사 모든 사료는 지대로 급여하는 것이 좋다.(지대급여를 하면 매 끼니마다 신선한 사료를 줄 수 있고 섭취량을 쉽게 알 수 있어 급이기에 사료 잔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위치별, 눈금별, 임신시기별로 자동급이기의 사료량을 한달에 한번은 재어서 관리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자) 급이기에 부착된 호스로 물을 주어 이유자돈들이 항상 충분한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 모든 관리의 기본으로 주기적으로 모든 몸체에 (+, -)를 표시하면서 조절한다.(돈사환경, 돼지체형 산차 등을 고려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모든 BCS 관리철저)

카) 자돈들이 편리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니플의 높이도 상당히 중요하다.(어깨 높이 정도)

타) 관리와 상관없이 주간에도 항상 조명을 켜서 광조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 박건용 수의사의 환기 체크포인트

가) 돈사내 환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돈사내 단열이다.(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레탄으로 원벽 보호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화상기를 이용하면 분명히 구멍이 있다. 즉 단열이 우선 잘 되어있어야 환기가 잘 될 수 있다.)

나) 컨트롤러의 센서 위치를 확인한다.(돈방에 위치별로 온/습도가 틀리다. 센서가 어디에 위치하는냐에 따라 과환기, 저환기가 될 수 있다.)

다) 컨트롤러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컨트롤러 박스와 센스의 연결 상태 확인하고 실제 온도와 맞게 잘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센서 부위에 일반온도계를 설치한다)

라) 항상 휴대용 습도계를 가지고 다니고 돈사 외부에도 온·습도계를 준비해야 한다.(돈사비치용은 가스 때문에 고장 쉽고 때가 묻어 정확하지 않다. 또한 외부 온·습도계를 준비하여 외부 온도 대비하여 돈사내 온도를 맞추어야 한다.)



▲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박건용 수의사

마) 계절에 따라 유속에 따라 느끼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틀리다. 환기는 적정온도가 우선 관리되어야 한다.

바) 3년 이상 흰을 사용했을시 주기적으로 흰의 상태를 점검한다.(입기량과 배기량을 잘 계산했다고 해도 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속도로 흰컨트롤러에 환기량을 지정해 주어도 작년



▲ 육안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화상기를 이용하면 분명히 구멍이 있다.



▲ 유속측정-유속은 정밀한 측정기로 0.15 m/s이하가 되어야 적당한 유속이다.



▲ 유속 및 환기량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한 스모그 제네레이터

▶ 박건용 수의사와 교육생이 스모그 제네레이터를 이용해 공기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있다.



과 올해의 환기량은 달라질 수가 있다.)

사) 입기구와 배기구는 컨트롤을 따로 설치해야 관리가 용이하다.

아) 1차웬(주출력웬)과 2차웬은 온도편차를 조절하여 1차웬이 100%작동된 후에 2차웬이 작동되어야 한다.(2차웬은 ON/OFF개념이 아니고 2차웬도 1차웬과 마찬가지로 가변이 될 수 있게끔(멀티웬) 하여야 한다.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되었다고 해서 2차웬이 작동되는 것은 과환기로서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자) 관리가 힘든 새벽이 돼지들의 질병이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므로 관리시간에 새벽과 같은 조건으

로 맞추고 개선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 돈사내 습도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은 호흡기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

카) 돈사내 환기에 대한 변화를 줄 시에는 돼지와 돈사내 온도, 습도에 대한 일주일 이상 꾸준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타) 무창돈사의 관리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시설관리(유지, 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 이론적인 환기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돈사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농장에 맞는 환기방식이 필요하다. **양돈**